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매년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안학교 현장에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랑의 끈이 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인연을 이어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정규학교를 그만둔 그들에게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도록 격려하는 따뜻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으로 간 아이들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제도권 밖의 아이들이 해마다 약 2,0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지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으로 간 아이들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7만 명, 광주광역시의 경우 약 2천 명의 청소년들이

자이든 타이든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전국 68,188명, 광주광역시 1,918명)

학교 밖으로 간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것일까? 학교 밖으로 간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돌봄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환경의 아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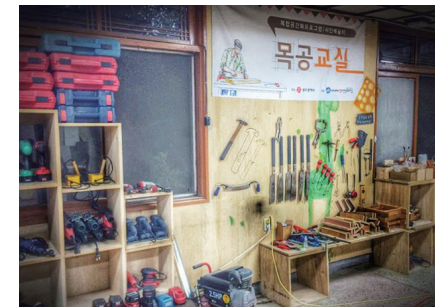
그나마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된 이후 이들은 교육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십상이다.

학교 밖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이 아직 사회의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광주광역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렀다. 우선 광주시 의원발의로 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조례 제3987호)(이하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형편상 정규 교육기관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였다”고 광주광역시 담당자는 설명한다.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1년 12월에는 광주발전연구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프로그램 목공작업장학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에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제도권 안의 다른 학교들과 똑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광주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위탁기관인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센터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 연 3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14년 5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요구가 높아지고 또 무상급식 시행이 보편화되어 가는 흐름에 따라 학교 밖 아이들,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일반 정규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일반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할 때 분명 시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규 학교든 학교 밖의 대안학교든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앞 세대의 책임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규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서 비정규학교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평등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광주광역시장의 지시로 비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방침이 확정되었고 2014년 3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이 시작될 수 있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연 1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센터

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1인 1식 3,500원 그리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편견 대신 관심과 지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의 옛 학생회관 뒷골목 부근은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청소년밀집지역이다. 그런데 금요일 밤만 되면 이곳에 독특한 길거리 카페가 들어선다. 일명 ‘와이파이카페’다. 와이파이는 청소년을 뜻하는 ‘Youth’의 약자인 ‘Y(와이)’와 숫자 무한대를 뜻하는 ‘π(파이)’의 합성어로 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다. 한밤에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불을 밝힌 와이파이 카페에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온다.

“연애상담도 해요? 재밌다.”

“이 보드 게임 해봐도 돼요?”

“이거 먹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와이파이 카페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기도 한다.

“이 게임 한번 해볼래?”

“간식 좀 먹고 가라.”

“상담 한번 받아 볼래? 연애상담도 해주는데.”

때때로 이 카페는 요리작업장이 되거나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찬바람 속에서 술술 음식 냄새가 풍기면 무심히 지나가던 청소년들도 한번쯤 돌아보고 다가오곤 한다.

바로 센터가 운영하는 길거리 카페의 모습이다. 청소년 밀집지역인 이곳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보드게임 등과 같은 놀이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진로상담이나 연애상담까지 해주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계 맺기에 나서고 있다.

2012년 9월 개소한 센터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이다. 이민철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약 2,000명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의 대안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역할입니다.”

센터의 가장 큰 사업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연 3억 원의 운영비와 연 1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일이니 만큼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그밖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정보 제공 및 대안학교 연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진로 및 취업 교육,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도교사 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징검다리가 필요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교사들의 자비량으로 해결하곤 했다. 수업시간을 식사 시간을 피해서 정하는 학교도 있었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 자비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쌀 같은 것을 후원 받기도 했어요. 더 맘껏 먹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안타까웠죠.”

“이곳에는 밥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끼니를 해결하러 오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밥 한 그릇이 끈이 되어서 학교와 학생을 이어주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중 무상급식 지원을 가장 반가워한 곳은 징검다리 배움터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들이었다. 징검다리 배움터는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그야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들의 징검다리와도 같다. 아이들에게는 모여서 쉬는 아지트와도 같다.

징검다리 배움터의 하루는 다른 학교보다 많이 늦게 시작한다. 모든 학교에서 9시가 되면 교실마다 학생들이 빼곡히 차 있는 것에 반해 이곳 징검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리 배움터에는 12시가 넘어서야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심지어는 오후 늦게 나오기도 한다.

징검다리 배움터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 어젯밤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또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 생각인지 짧으나마 대화가 오고간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학생들도 생긴다.

“이곳은 징검다리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영원히 사회 밖으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이곳을 징검다리 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곳이지요.”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과 관계 맺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비록 지금은 학업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이들이 다시 학업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하니까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이죠. 공부는 포기한 지 오래

되었고 술 담배는 기본으로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공손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징검다리 배움터 교실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일은 없다. 그저 아이들과 관계 맺기에 몰두한다. 그리고 밥을 먹인다. 노느라고 귀찮아서 또는 용돈이 떨어져서 한 끼 식사를 번번히 건너뛰는 아이들이 많다. 자의든 타의든 가정 안에서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저 친구들과 인스턴트 라면이나 싸구려 분식으로 하루하루 때우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태반이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부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는 것이 징검다리 교사들의 제일 큰 미션 중의 하나이다.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사랑까지 담아서 언젠가 아이들이 주변과 사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길 밖에서 길을 찾는 아이들

현수(가명)는 15살 때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두니 갈 곳이 없었다. 가정형편상 낮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면 집에서 나와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동네의 이런저런 시설을 돌아다녔다. PC방도 다녔다. 센터도 기웃거렸다.

“동네에 다 알려진 학생이었어요. 말이 어눌한 데다 우리 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도망을 다니곤 했죠. 친구도 없었어요. 우리 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려고 해도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렵게 징검다리 배움터를 연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수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엔 현수가 징검다리 배움터에도 정을 못 붙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징검다리 배움터의 한 교사가 하루 종일 현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나갔다. 다른 활동을 할 때도 현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늘 함께 했다. 현수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그저 징검다리 배움터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마땅히 밥을 해결할 곳도 없는데 배는 고프고... 그런데 이곳에 오면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친절하니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곤 한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교사의 친절함 미소나 격려의 말이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한다. 비록 정규학교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들이 인생의 장에서도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가 싫었는데, 요즘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보려고 합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맨날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죠. 밥 먹으러 집에 가기도 귀찮고 집에 가도 엄마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안학교에서 무료로 밥을 주니까 요즘은 굶거나 라면으로 때우지 않아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길 밖에서 길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 뒤에는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센터, 그리고 대안학교 사람들의 수고가 숨어 있다.

현재 광역시에는 11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공간 오름, 도시속 참사람 학교, 래미학교, 무진이룸학교, 독립아카데미, 해밀교실의 도시형 대안학교가 6개소 있다. 별별학교, 화월주 성장학교 다운, 바람이 머무는 학교, 늘품교실의 징검다리 배움터가 4개소 있으며, 지혜학교라는 1개소의 철학인문학대안학교가 있다.

조례 및 센터 설립 전에는 불과 3곳밖에 없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을 두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센터 역시 청소년들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 줄 것이다. ✿

Interview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민철 센터장

“진정한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Q.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면서 고충은 무엇입니까?

A.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센터나 대안학교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결되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주기도 하고, 가정법원에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알게 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센터가 길거리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많은 아이들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일차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이것은 저희는 복지보다는 교육의 시각으로 봅니다. 교육에서 영구적으로 소외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Q.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정책이 실시된 이후 변화는 무엇입니까?

A.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안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와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대안학교의 시스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A. 센터의 운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서 보람이 큼니다. 또한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어느 사이엔가 변해 있고 표정이 밝아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 욕심을 내면서 계획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편견 대신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